

리더십 부재에 무색·무취 전술... '클린스만호' 좌초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클린스만 감독 경질로 뜻 모아 선수단 내분·국내 정서 괴리 등 아시안컵 성적 떠나 태도 더 문제

64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 탈환 목표 달성에 실패한 클린스만호가 출항 1년 만에 좌초되며 한국 축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위원장 토마스 뮐러)는 1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결과를 비롯한 현안을 놓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경질에 뜻을 모았다.

전력강화위는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안·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감독 경질을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는 만큼 '사령탑 경질' 의견을 축구협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경기인 출신 임원 회의와

이날 전력강화위에서 '사령탑 경질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된 만큼 클린스만 감독과의 이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023년 2월 27일 대한축구협회는 파울루 벤투 감독의 후임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였다.

축구계에서는 선임 배경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독일 대표팀의 골잡이 출신인 클린스만 감독은 2004~2006년까지 독일 대표팀 감독을 맡아 자국에서 열린 2006년 월드컵에서 3위를 달성하며 지도자로서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맡았을 때도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탈락과 정규리그 2위의 성적에 머물렀다.

독일 대표팀 출신의 필리프 램은 자서전에 클린스만 감독의 뒤편 사령탑 시절에 대해 "우린 체력 훈련만 했다. 전술적인 지도는 거의 없었다"고 밝힌 논란이 되기도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대표팀(2011~2016년)을 이끌었을 때도 북중미 골드컵 한 차례 우승(2013년)과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이 최고 성과물이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부진으로 경질됐다.

특히 2019년 11월 헤르타 베를린(독일)을 맡았지만 단 10주 만에 지휘봉을 반납하는 기행을 벌였고, 3년의 공백기를 거쳐 한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다.

공백 기간도 길었고, 전술 능력에 의문부호가 달린 채로 태극전사 지휘에 나선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3월 콜롬비아와 친선전(2-2 무)을 통해 데뷔한 이후 A매치 5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축구협회가 1992년 A대표팀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이래 부임 후 5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사령탑은 클린스만 감독이 좌초였다. A매치 무승 행진이 길어지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무색·무취' 전술은 팬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에서 1-0으로 신승하며 6경기 만에 첫 승전고를 울린 클린스만호는 아시안컵 직전까지 6연승을 내달리며 64년 만의 우승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클린스만호는 아시안컵을 치르는 내내 수비조직력은 물론 공격수끼리의 호흡도 맞지 않아 팬들에게 실망을 주더니 아시안컵 4강전을 하루 앞두고는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생제르맹)

이 명실잡이까지 벌였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팬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전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거주자의 약속도 저버린 채 미국과 해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팬들의 미움을 자초했다.

국내 거주에 소홀했다는 팬들의 지적에도 웃으면서 "대표팀 감독은 클럽 감독의 업무 방식과 다르다. 주요 선수들의 파악을 위해선 국제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라며 대응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완패한 뒤에도 선수들의 분한 표정과 달리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전력강화위에서도 "국내 체류 기간, 근무 태도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 "여러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회복하기 불가능하다" 등의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



상처만 남은 아시안컵 영국 대중지 더선이 14일(한국시간) 손흥민이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저녁 후배들과 언쟁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됐다고 보도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회 기간에 선수들이 다통을 벌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일부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가려는 과정에서 손흥민과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강인 "손흥민에 주먹 날렸다? ... 사실과 달라"

"대표팀 불화 죄송" 사과문 올려 사실 아닌 내용 확대·재생산 돼

한국 축구대표팀 내내내 사태의 중심에 선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이 주장 손흥민(토트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강인 측 대리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이강인이 탁구를 칠 때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즐겼고, 탁구는 이전부터 항상 쳐왔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이강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이강인의 역할을 호소했다.

전날 영국 대중지 더선 보도를 통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 전날 저녁 식사시간 한국 축구대표팀 내 선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강인, 설영우(울산),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등은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친 후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다가 주장 손흥민의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자 이강인이 주먹질로 맞대응했고, 다른 선수들이 두 선수를 때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사건 이후 고참급 선수들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정상 출전시켰다.

내분 사건이 알려지자 이강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는 축구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첫 유치 '부산세계탁구대회' 오늘 개막

25일까지 벅스코서 개최
47개국 2000여명 참가
파리올림픽 출전권 향한 열띤 경쟁 예상

탁구 종목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인 'BNK부산은행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린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최하고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47개국에서 2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1926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열린 뒤 지금까지 총 65회 개최되었다.

탁구 강국인 우리나라가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국내에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2020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회 개최가 취소된 바 있다.

시는 2021년 11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정기총회에서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남자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으로 진행된다.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 16장(남·여 각 8장)이 걸린 이번 대회는 올림픽 전초전으로 불린다.

남녀 각 40개국이 5개국씩 남녀 8개 조로 분산돼 그룹 예선 리그를 벌인 이후 각 조 3위까지 24강 토너먼트로 순위 경쟁을 펼친다.

대회 개최식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꿈을 담아 부산으로'라는 주제로 벅스코 제1경기장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색과 탁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채로운 미디어 퍼포먼스와 퓨전 국악 공연 등이 있을 예정이다.

개회식 종료 후 대한민국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 연계 행사로 ITTF SUMMIT, 국제탁구연맹 회장배 유소년·생활체육 대회도 동시 열린다.

주최 측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경기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왕카, 장인과 사위
2관 왕카, 소풍
3관 왕카
4관 시민덕희
5관 도그데이즈
6관 시민덕희, 스노우 퍼핀즈
9관 건국전쟁, 데드맨
7관 싸이클링 건국전쟁, 소풍, 아가일
8관 싸이클링 [위드키즈]DMZ 동물 특공대, 아가일극장판: 사이렌 스톤의 비밀, 서울의 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마리퀴리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GAC 공모전시 정송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